



Linen | Representations in Holland had the woman at home spinning as the epitome of tranquil virtue, whereas women in a group were too sensual and wild. In Ireland young women in the home were seen as ‘unruly’, their idleness leading to “tearing hedges, robbing orchards or begging their fathers”.

English proto-capitalists instituted labour discipline.

1972 | The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of India was founded as a trade union. It was kick-started by migrant women working as cart-pullers in Ahmedabad’s cloth market, who were then living on the streets, and ‘head-loaders’, women carrying loads of clothes between the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Beatriz Canedo Patiño | Well, obviously they knew my reputation, I mean, I don’t want to brag but I’ve dressed a lot of famous people. Maybe also, they knew I’d done a lot of my work with alpaca yarn, even though Bolivians themselves, the upper class, so to speak, they wouldn’t wear it; for them it was for their maid or their butler to wear alpaca.

리넨 | 홀란드에서는 혼자 있는 여성을 평온한 미덕의 전형으로 재현되는 반면 무리 지어 있는 여성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거칠게 표현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가정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제멋대로’라고 여겼고, 그들은 게을러서 “울타리에 구멍을 내고, 과수원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아버지를 거지로 만든다”는 이야기할 정도였다.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자proto capitalists들은 노동기강을 확립했다.

1972 | 인도 자영업 여성 협회는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촉진한 것은 길거리에 살면서 아마다바드의 옷 시장에서 수레 끄는 일을 하던 이주민 여성들이자 도매와 소매 시장 사이에 많은 옷을 나르는 ‘헤드로더’들이었다.

베아트리스 카네도 파티뇨 | 글썄, 분명히 그들은 내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많은 유명인들에게 옷을 입혀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알파카 실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류층 볼리비아인들은 알파카를 입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알파카는 하녀나 집사가 입는 것이었습니다.



아크릴 섬유 재질의 자수;
2009년 라파스에서 구입.

이 자수는 2009년 볼리비아 혁명 정부 시기에 판매되었다. 자켓에 수놓아져 있는, 베레모를 쓴 체 게바라Che Guevara¹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전세계의 의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산주의 영웅의 이 얼굴은 “노스텔지어의 상품화된 표현”이라고 불리었다.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의 20세기 여러 독재 집권기 중 하나가 진행중이던 1987년10월 9일 볼리비아에서 CIA(미국중앙정보부) 배후의 암살단에 의해 살해당했다. 거의 모든 암살사건에는 암묵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196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사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억압과 대량학살, 고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여기에는] 미국의 훈련과 다양한 지원이 연루되어 있었다.

1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 6.14 ~ 1967. 10. 9:
본명Ernesto Guevara de la Serna.
아르헨티나 출생의 쿠바
정치가이자 혁명가다.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를
만나 쿠바 혁명Cuban
Revolution에 가담했고
라틴아메리카 민중혁명을
위해 싸우다 볼리비아에서
사망하였다.

2 에보 모랄레스 Evo Morales
볼리비아의 전 대통령이다.
2005년 취임해 2019년까지
14년이라는 최장 집권 기록을
남겼으며 최초의 볼리비아
원주민(아이마라족)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천연가스 등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해서 재정수입을 확충
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빈곤
해소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개헌을 하여 4선 연임을 시도
하였고 2019년 11월 10일 부정
선거 논란으로 시위가 일어나자
사임한 뒤 멕시코로 망명했다.

이런 지점에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²대통령의 당선은 혁신적이었으며, 모랄레스 정권이 2009년 2월에 설립한 새 국가 헌법 또한 그러했다. 대다수의 볼리비아 시민들이 한달이나 먼저 헌법 개정 총선거에 표를 행사했다. 새로운 헌법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혁신적인 헌법이라 주장했다. 법령 전문(前文)에서 지난날 볼리비아 물 전쟁Water War³을 포함한 모든 고군 분투와 과거 순교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체 게바라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미지가 당시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은 대중이 체 게바라 역시 순교자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새 헌법은 볼리비아의 다민족적plurinational 성격과 생태계에 대한 책임이 두가지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법률, 경제, 문화와 언어의 다원주의를 선언하며, 헌법초안을 아이마라어, 케추아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많은 언어들도 열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나아가 “환경 시스템과 지역 거주민의 공동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인프라와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서 자본주의 세계를 분노하게 하기도 했다.

3 볼리비아 물전쟁
Water War (Guerra del agua
en cochabamba): 볼리비아는
1980년대 외환위기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수도 민영화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건설 기업인 벡텔
Bechtel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아구아스 Aguas del Tunari가
상하수도 운영권을 갖게 되었고
코차밤바Cochabamba 시의
물 공급을 독점하며 물 값을
대폭 올렸으며 빗물, 농업용
수사용에도 요금을 매겼다.
이에 2001년 시민들이 민영화
철폐를 주장하며 투쟁했고
4월 경 볼리비아 정부는 위
기업과의 계약을 폐기했다.



방적실은 15세기에서 17세기 후반까지 독일 마을에서원사(原絲) 생산을 위한 중요한 중심지였다. 여성이 우위에 있다고 인식된 세계에서는 성적 문란과 무질서가 만연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무자비함과 용감함을 표현하기 위해 긴 기장의 리넨 셔츠를 입었다.” 원사와 그 원사로 짠 옷감인 리넨의 원 재료인 아마(亞麻)는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직물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 기원전 8000년의 아마 조각들이 오늘날의 스위스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수천 년 동안 [아마 생산] 자급자족하는 ‘소작농’ 경제인 카우프 Kauf 라는 체제의 일부였는데, 카우프는 ‘새로운 세계 New World’의 노예들에게 입힐 옷을 만들기 위한 ‘오스나브뤼크 Osnabruck’ 천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만들어낸 노동의 분업과 함께 ‘반출 putting out’ 시스템인 페어라그 Verlag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철저한 자본주의 규율이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리넨 생산국이 된 아일랜드 북부 지방은 기술이 발전하고 공장체제로 전환하던 19세기 이전부터 변혁의 실험실과도 같았다. 16세기 말, 아일랜드를 방문한 한 영국 여행자는 원주민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일랜드 원주민들은 샤프론으로 염색한 30엘에서 40엘 길이의 셔츠를 입었다.”⁴ 엘은 1야드⁵를 조금 넘었다. 18세기 중반까지 리처드 콕스 경 같은 ‘기업가적’ 식민지 지주들은 리넨을 사업화하기 위해 사회 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토착인들의 달력이나 의례, 축일 등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생산자를 위한 풍요 개념 역시 사라져 갔다. 하나의 예로 노동절⁶은 ‘포상’의 날이 되어 공개적으로 보상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그들의 “일정하지 않은 기술수준”과 근면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노동인력 actor 로 만들었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부리는 부리는 술수 machination 도 경계해야 했다. 콕스는 그것이 “가게에서 쥐를 기르고 아끼는” 치즈장수와 같은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식민지적 사고 방식은 평점제 credit 에 의해, 그리고 [평점을 받게 될] 잠정적 수혜자들이 아마나 린넨 생산을 위한 “노동에 헌신”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조각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영국이 식민지의 토지를 횡령하자,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땅’의 감자 수입⁷ 때문에 더 의존적이게 된 아일랜드 농촌 인구가 만들어졌다. 1662년 토지 횡령은 협조적이지 않은 직공들의 아마와 직물 몰수,

6 Cox's promotion scheme included an overhaul of the ritual calendar; he discourages his tenants from celebrating their traditional feast days and transformed May Day into "the joyous season of Determining the Premiums" (1749:32). Then, a full assembly gathered for the applauses and demerits that each deserved. In determining who got what, firsthand "Acquaintance" and "Observation" were essential, for it was Cox's view that the "Undertaker must attend personally the growth of the Undertaking" (1749:48). He should not "receive Reports from others; for those will often be partial, though Love, Malice, or Envy..." from Cloth & Human Experience
https://books.google.co.kr/books?id=D_RvDwAAQBAJ&pg=PA190&dq=rearing+and+cherishing+Rats+in+his+shop&source=bl&cots=e0cjCKg6J3&sig=ACfU3U38ATwO4ESXRF7ui0K7UPdHHZNOYQ&hl=ko&sa=X&ved=2ahUKewitypm10cbqAhXKdXAKHdRmCW4Q6AEwAHoECAYQAQ#v=onepage&q=rearing%20and%20cherishing%20Rats%20in%20his%20shop&cf=false

4 샤프론으로 염색된 아일랜드 셔츠

5 1야드는 0.9144 미터에 해당한다.

7 새로운 땅. 감자도입

잉글랜드에서 온 개신교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특권, 아일랜드산 양모에 대한 큰 금액의 수출세 부과에 의한 양모 산업의 파멸, [그리고] 리넨에 대한 관세 보호에 의해 더욱 가속되었다. 이 모든 일은 그 유명한 위그노 망명자이자 아일랜드 리넨 산업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넨 전문가 루이 크롬멜린 Louis Crommelin이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났다. 이 때부터 땅 없는 부랑자에 대한 복지(자비)는 해로운 것으로 묘사되고, 리넨을 생산할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악랄한 사고 방식이 생겨났다. 또한 여기에는 생산과 관련된 젠더 엔지니어링을 포함되었다.

방적은 병목현상처럼 보였다. 한 명의 방직공이 작업하기 위해서는 8명의 방직공이 필요했다. 리차드 콕스 경과 같은 초기자본주의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이 긴 섬유질을 파쇄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작업을 하도록 했다. 남성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인위적인 나약함 artificial weakness을 배울” 필요는 없었다. 방적의 경우, 여성 노동력을 어디에서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는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홀란트에서는 혼자 있는 여성을 평온한 미덕의 전형으로 재현하는 반면 무리 지어 있는 여성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거칠게 표현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가정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제멋대로’인 것으로 여겼고, 그들은 게을러서 ‘올타리에 구멍을 내고, 과수원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아버지를 거지로 만든다’고 여길 정도였다. 반면에 이웃들이 빛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여 갖는 수작업 방적 ‘모임 bees’을 갖는 것은 큰 즐거움과 관련이 있었으며, 개신교와 카톨릭의 위계질서에서 볼 때 여성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대단한 악덕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여성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분투했던 방적 기관에 있었다. 각 여성의 노동의 집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였던 작업장과 고아원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공간들은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공장 규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에서는 1811년에도 여전히 손으로 리넨 원사를 방적할 수 있었고, 아일랜드 북구에서는 [손으로 짠 리넨 원사가] 잉글랜드의 기계에 의해 생산된 똑 같은 재료들보다도 더 싸게 팔릴 수 있었다.



노동조합(union)으로 설립된 인도의 자영업자 여성회(SEWA)는 917년 간디가 주도한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영감을 얻은 아나수야 사라바이 Anasuya Sarabhai⁸라는 여성에 의해 1920년에 설립된 섬유 노동 조합에서 출발했다. 조합의 여성회는 1954년 제분소 노동자들의 아내와 딸을 연수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결성되었지만, 이것이 의류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착취를 당한 일부 자영업자 '가정주부' 여성 재단사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노조를 촉진한 또 다른 그룹의 여성들은 거리에서 살면서 아마다바드⁹의 옷 시장에서 수레 끄는 일을 하는 이민 여성들이자 도매와 소매 시장 사이에 많은 옷을 나르는 '헤드 로더'¹⁰들이었다. 포목 도매상들을 무색하게 한 그들의 성공은 중고 의류 상인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자체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위해 투쟁하게 했으며, 마침내 그것이 인정되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섬유와 의류, 새 것과 중고품이 표준화된 금속 컨테이너를 타고 들어오고 나간다. 칸들라 Kandla¹¹는 주요 중고품 환적 항구이다. 컨테이너에는 바다나 항구와 배 안에서 그들의 행방을 즉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RFID태그가 붙어있다. 대다수의 항구에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컴퓨터 정보가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기중기들에 의해 [컨테이너가] 어디로 옮겨져야 하는지가 지시되고 조정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차례대로 도착하는 평평한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순서와 일치하도록 동기화된다. 오늘날의 로봇화 된 물류 시스템은 세계적인 생산 체인과 빠른 패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옷과 직물이 실제로 팔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과 상파울루 시내와 같은 도매, 소매 시장에서는 물류는 계속해서 손수레, 50cc 자전거 또는 자신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라파즈¹²에서는 인간 적재 운반선인 아파라피타스 aparapitas¹³가 시장 구역의 경계를 훨씬 넘어 운송한다. 이러한 경우 비록 공식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관례에 근거한 임시 조합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령 세우타¹⁴와 멜리아¹⁵를 거쳐 모로코와 등지로 오가며 제도화된 '밀반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쟁세계에서는 그러한 임시조합이 없다. 이곳 여성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촘촘한 복도같은 길을 다니며 최대 100kg에 달하는 짐을 나르고 있다. 한 여성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으로부터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나에게 미래가 없을 때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느냐고 대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SEWA의 존재와 수명은 특별한 것이다.

8 아나수야 사라바이(Anasuya Sarabhai)는 여성 노동 운동의 선구자이었고 1920년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섬유 노동자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9 아마다바드(Ahmedabad)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최대의 도시로 인구는 351만 5,361명이다.

10 헤드 로더 Head loader는 머리에 짐을 이고 나르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

14 세우타Seuta,Ceuta는 아프리카 모로코 북부, 지브롤터 해협 연안에 위치한 스페인의 고립 영토이자 자치 도시이다.

15 멜리Mellia는 스페인의 자치 도시. 세우타와 마찬가지로 이베리아 반도가 아닌 북아프리카 본토에 위치해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9 아마다바드(Ahmedabad)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최대의 도시로 인구는 351만 5,361명이다.

11 칸들라(Kandla)는 Gandhidham시 근처의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Kutch District에 있는 항구입니다. 쿠치 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주요 항구 중 하나입니다.

12 라파즈La Paz는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이다. 1548년 에스파냐의 알론소 데 멘도사 선장이 건설했다.

13 아파라피타스(aparapita)는 볼리비아 시장에서 서로 다른 물품을 등에 업고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6 베아트리스 카네도 파티뇨
Beatriz Canedo Patiño
1950-2016. '알파카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볼리비아의 패션
디자이너. 알파카, 비쿠냐,
라마 등의 낙타과 섬유의
탁월한 사용으로 유명하다.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 프랑스로
이주하였고 뉴욕과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직물은 인도네시아의 자티왕이Jatiwangi 주변 지역에서 여성 협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제조되는 기와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정밀한 작업을 함으로써 남성들보다 더 수입이 많으며, 모두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점토의 채굴은 벼농사와 함께 진행된다. 바틱batik 17은 이 지역의 전통 공예품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모두가 그 천을 입고 있다.

17 바틱 batik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염색의 독특한 기하학적인
무늬나 천의 명칭

“나는 볼리비아인입니다. 그러나 수 년간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뉴욕은 그 물동량(物動量) 때문에 파리나 밀라노를 제치고 세계 패션의 중심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볼리비아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나는 디자인을 하면서 다른 재봉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옷들이 ‘메이드 인 볼리비아Made in Bolivia’ 라벨로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귀향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가 “라파스에서 이런 멋진 여자가 뭘 하고 있을까”와 비슷한 제목으로 나를 인터뷰했던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왜 뉴욕을 두고?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나는 MBA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이지만, 토론토에서 500벌의 의류 주문을 받았을 때 자리에 앉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의 재봉사들은 정기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않지만,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스운 것은 이런 훌륭한 재단의 전통이 영국인들이 철도를 건설할 때 가져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몇몇 영국인 재봉사들이 함께 들어왔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일과 잘 맞는 이유는 내가 기술디자이너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이 때문에 아마도 나는 항상 미스터 카네도Mr. Canedo라는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단지 그들은 의류 사업 뒤에 여자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귀국했을 때, 우리의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의 팀이 방문하였고 그들은 내가 그의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분명히 내 명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있었습니다.

내 말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많은 유명인들에게 옷을 입혀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알파카 실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류층 볼리비아인들은 알파카를 입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알파카는 하녀나 집사가 입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에게 [대통령이 취임식에 입을] 옷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500년 만에 [선출된] 첫번째 원주민 대통령인 그가 정말 멋있게 보이길 바랬습니다. 비록, 진짜 볼리비아 스타일대로 그들이 매우 늦게 그 일을 넘겨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넥타이를 매고 싶어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이 점은 나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문화, 아이마라Aymará와 동일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퀘추아Quechua사람이 아니라 아이마라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점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냥 손쉽게 아르마니 정장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고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출장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부통령인 알바로Álvaro가 와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고, 나중에는 내가 만든 시안들을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정장이 알파카로 만들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국기가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충분히 요란스럽기 때문에 정장의 색깔은 은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장에 아이마라의 문양들을 수놓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고 이곳에 오거나 전화를 거는 이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도 나는 그 문양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직접 다 했는데, 그게 내가 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까다롭다고 부르지만, 그게 그저 평범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내가 대통령을 위해 옷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의 언론들이 대통령의 취임식옷을 만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때로는] 모욕적인 태도도 보이며, 돈을 제안하고, 카메라를 가져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밖에 있는 나무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물론 취임 후에는 더 이상 그들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지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나는 모든 낙타류 섬유에 대한 연구와 심포지엄과 더불어 그 주제의 국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 섬유들을 내 디자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초호화 섬유이자 가장 가는 섬유인 비쿠냐vicuña¹⁸는 캐시미어보다 훨씬 더 질이 좋고 게다가 훨씬 예쁜데, 캐시미어 염소가 아주 못생긴 것에 비해 비쿠냐는 매우 우아한 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쿠냐를 처음으로 사용한 디자이너입니다. 나는 일부 말도 안되는 바보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비쿠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는 낙타과의 그 동물을 죽이지는 않으면서도 비쿠냐의 털은 깎을 수 있으며, 이는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민들campesinos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비쿠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칠레에서 열린 지난 심포지엄에서 나와 우리 회사만이 이를 디자인하고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작업입니다. 이는 신성한 직물입니다.

18 비쿠냐 vicuña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평야 고지에서 서식하는 낙타과의 동물, 비쿠냐의 털은 캐시미어를 능가하는 최고급의 섬유이자 2-3년에 한 번씩만 털깎기가 가능한 희귀한 섬유이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가 진지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최근 인터뷰를 하면서 오바마 부인에게 남편의 취임식 때 무엇을 입을지를 어떻게 조언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타크루즈의 소위 수준 높은 신문은 나 외에도 몇몇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바탕으로 시안을 그렸고, 이에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안이 아닙니다. 머리는 너무 크게 그렸고, 물론 우리는 불쌍한 오바마 부인이 엉덩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날에는 이를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방식! 내 말은, 코트의 길이는 드레스와 같아야 하는데, 그럼 그녀는 눈 속에서 지갑을 어떻게 들고 다닐 것입니까? 그녀는 얼어붙을 것이고, 게다가 알다시피 여왕과 공주들은 뒤에서 그들을 대신 하여 돈을 지불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산타크루즈 언론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어는 상당히 멍청했습니다. 나는 오바마 부인이 세련되고 우아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스카프를 두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석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카라카스 Caracas¹⁹에서와 약간 비슷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피부, 피부, 피부; 보석, 보석, 보석 등 모든 것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 내가 말한 것은 “매우, 매우 작은 보석” 이었는데, 특히 지금 영부인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등장하는 것은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비해 너무 화려해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 카라카스 Caracas
베네수엘라의 수도.